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

10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묵주기도의 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묵주기도의 역사와 사실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

묵주기도가 시작되기 전에도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구슬(bead)을 사용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사막 교부들(수도자들)은 기도를 기억하기 위해 150편의 시편을 매듭진 밧줄로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데, "예수 기도"와 "주님의 기도"(Paternoster)와 같은 다른 반복적인 기도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자와 사제들은 150편의 시편, 즉 성무일도를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평신도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150개의 구슬에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사용하여 기도했습니다.

1214년경, 성 도미니코 데 구즈만은 이단과 죄악의 만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고, 성모님께서는 묵주를 들고 그에게 나타나 이단과 죄에 맞서 싸우는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도미니코회를 설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신심은 쇠퇴했습니다. 14세기에 복자 알랑 드 라 로슈는 묵주회(Confraternity of the Rosary)를 설립하여 이 신심을 되살렸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묵주 신비가 추가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를 프로이센의 도미니코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569년, 오스만 제국이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 하자 교황 비오 5세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승리를 위한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오스만 제국은 큰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면, 유럽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연합군(Holy League)"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교황 비오 5세는 승리의 성모 축일을 교회 전례력에 추가했고, 이후 이 축일은 "목주기도의 성모"로 개칭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일을 10월 7일에 기념합니다. 그는 또한 교황 칙서 Consueverunt Romani를 통해 15가지 신비(환희, 고통, 영광)를 공식적으로 제정 했습니다.

1700년대 초, 성모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던 루이 드 몽포르 성인은 마리아론 고전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목주기도의 비밀" 등을 저술했습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목주기도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10월 전체를 목주기도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목주기도에 관한 11개의 회칙을 저술하여 "목주기도 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목주기도가 교회, 가정, 사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회칙들을 썼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하는 추세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 중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평화를 호소하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성모 마리아께서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프란치스코 마르토, 히야친타 마르토, 루시아 두스 산투스라는 세 어린아이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목주기도의 성모로 나타나 죄인들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각 단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구원을 비는 기도” (구원송)라고 부릅니다.

1921년, 프랭크 더프는 세상의 회개와 성화를 위한 영적 군대로서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했습니다.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기 위해 네 번째 신비인 빛의 신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요일에 이 신비를 바칩니다.

환희의 신비 (월·토)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목)

-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화·금)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수·일)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각 신비를 바칠 때마다 예수님의 삶에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목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며,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께로 재빨리 인도하십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매일 성모 마리아 성상 앞에 앉아 가족을 위해 목주기도를 바치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오랜 세월 안전하게 지켜졌고, 심지어 예수님께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의 영적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주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매일 목주기도를 바치기를 권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거룩하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 군대에 참여하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모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시다.>

(자료 제공: 시카고 성 김대건 성당 수녀원)

